SeAn Magazine.

세안그룹 정기발행 매거진 Vol.11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매거진
2023년 가을 (Autumn)

서울시내 궁 - 2편
여행, 일상이 되다
문화 소식
퀴즈

SEAN

Contents

01 서울시내 궁, 어디까지 가봤니? - 2편 Page 4

i. 창경궁
ii. 덕수궁
iii. 경희궁

02 여행, 일상이 되다 Page 14

03 문화 소식 Page 16

04 퀴즈 Page 18

익숙함에 숨겨진 아름다운 모습

서울시내 궁, 어디까지 가봤니? - 2편

1392년 조선 건국 후 태조는 수도를 지금의 서울로 옮기기 위해 경복궁을 지었다.
1405년 태종은 창덕궁을, 1483년 성종은 창경궁을 마련한다. 창덕궁은 정치의 공간으로 창경궁은 왕실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된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소실되었고 이 중에서 창덕궁이 가장 먼저 중건되었다. 이때부터 창덕궁은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광해군은 서대문 근처 '왕의 기운이 있다' 고 알려진 장소에 경희궁을 지었다. 이 경희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많은 부분 철거되어 다소 쓸쓸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덕수궁을 사용하였다. 이때 석조전, 정관헌 등 다양한 서양식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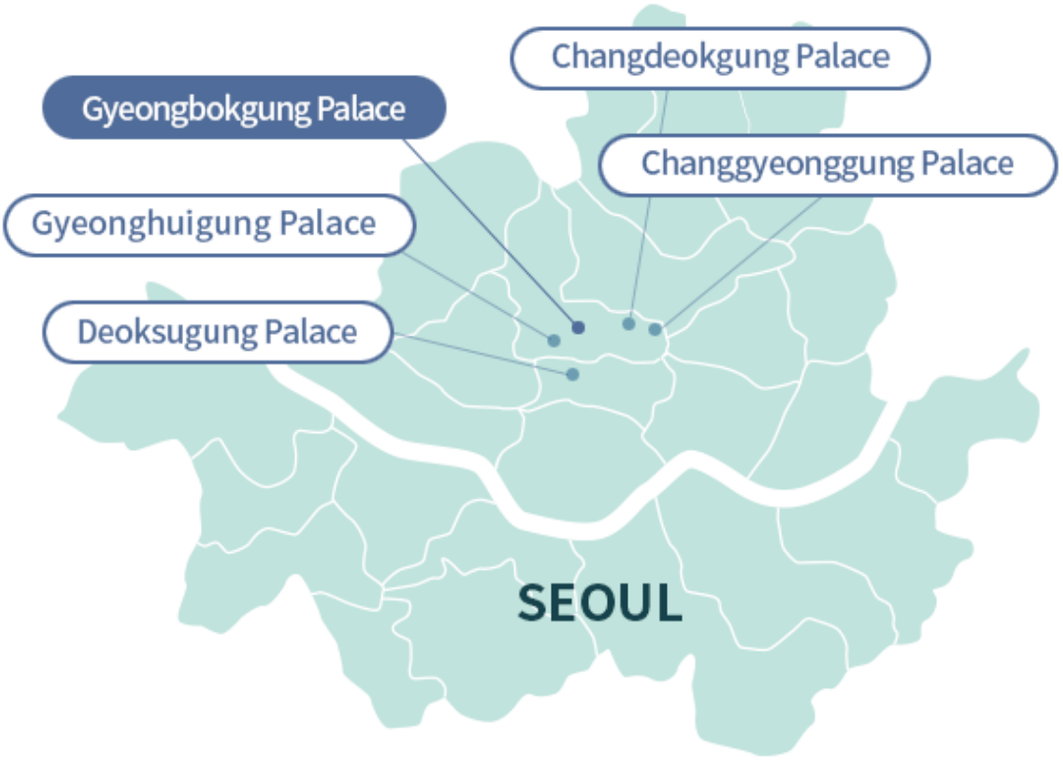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의 궁궐은 심하게 훼손되기 시작한다. 일제는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치하여 '창경원' 이라 부르며 유원지로 격하시켰다. 경복궁에는 조선총독부 청사를 짓고 덕수궁 일부를 헐어 공원으로 조성한다.

광복 이후 훼손된 궁궐의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창경원은 다시 창경궁이 되었으며,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하고 흥례문 부분을 복원하였다. 그 밖에 창덕궁, 덕수궁, 경복궁 등 모두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긴 역사 만큼 깊고 다양한 '희로애락' 의 순간들,
궁궐이 고스란히 품고 있는 시대의 감정, 그것은 바로 나의 것이 된다.

Seoul's Landmarks

5 Royal Palaces of Seoul



After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in 1392, King Taejo built Gyeongbokgung Palace to move the capital to present-day Seoul. In 1405, Taejong built Changdeokgung Palace, and in 1483, Seongjong built Changgyeonggung Palace. Changdeokgung Palace was used as a political space, and Changgyeonggung Palace was used as a living space for the royal family.
Gwanghaegun built Gyeonghuigung Palace near Seodaemun, a place known to have "the aura of a king." This Gyeonghuigung Palace was demo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remains in a somewhat desolate appearance. In 1897, King Gojong declared the Korean Empire and used Deoksugung as the imperial palace of the Korean Empire. At this time, various Western-style buildings such as Seokjojeon and Jeonggwanheon began to be buil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ur palaces began to be damaged. Japanese imperialism installed a zoo and a botanical garden in Changgyeonggung Palace and downgraded it to an amusement park. Also, the Japanese Empire demolished the palace to build schools and facilities for the Japanese.

After liberation, the palace reconstruction project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As long as the history of Korea, it is very important to restore the appearance of the palace where various moments existed. Experiences and emotions that the palace has. It becomes our roots.

창경궁

Changgyeonggung Palace

성종은 창덕궁 동쪽에 세 명의 왕후(세조·덕종·예종)를 위한 생활공간으로 창경궁을 세웠다.
왕조의 상징이었던 궁궐은 일제의 훼손에 의해 상처를 입게 된다. 1970년 창경궁 건물을 헐어내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유원지로 격하시켰으며 이름 역시 '창경원'으로 부르게 한다. 광복 이후 동물원을 이전하고 창경원에서 창경궁으로 다시 바꾸면서 본래 궁궐의 모습을 되살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아직 많은 부분 복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 명의 왕후들이 어떤 생활을 하였을지 상상을 하며 아름다운 자연과 왕실의 생활을 느껴볼 수 있다.

Changgyeonggung Palace was created for the private life of the royal family. The palace, which symbolizes the dynasty, was damaged in many parts by the Japanese. The Japanese Empire tore down the Changgyeonggung Palace and built a zoo and botanical garden. However, after liberation, the zoo and botanical garden were relocated,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rebuild Changgyeonggung Palace.

문정전

정치와 권력 다툼 속에서 영조는 자신의 세자에게 자결을 명한다. 문정전 앞 뜰에 놓인 커다란 뒤주에 갇혀 신음하던 세자는 28세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된다. 사도세자의 비극이 담겨 있는 문정전 앞에서 왕관의 무게를 상상해본다.

[Munjeongjeon Hall]

Munjeongjeon Hall is well known for the tragic history of Prince Sado, a son of King Yeongjo. Prince Sado was locked in a wooden chest and demoted to an ordinary citizen by his father King Yeongjo's command here at this hall. After 8 days of hunger and the heat, Prince Sado died in the chest. The life of a king is splendid, but also very miserable. Imagine the weight of the throne in front of Munjeongjeon.

환경전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

대장금이 중종을 진료한 곳이 바로 환경전이다. 조선시대 의녀 중 유일하게 왕의 주치의 역할을 했다. 대신들은 의원이 아닌 의녀가 주치의가 된다는 것에 불만이었지만 중종은 의원보다 대장금을 더욱 신뢰하여 거의 마지막까지 대장금에게 진료를 맡겼다고 한다. 중종은 결국 이 환경전에서 승하하였다.

[Hwangyeongjeon Hall]

'Dae Jang Geum', a Korean drama that has been successful all over the world. The place where Dae Jang Geum treated King Jung Jong is Hwangyeongjeon Hall. Dae Jang Geum was the only female doctor in the Joseon Dynasty who served as the king's personal physician.

통명전

통명전은 왕비의 침전으로 사용되던 장소이다.
궁녀였던 장옥정은 숙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고, 왕자를 출산하여 희빈의 자리에 오른다. 자신의 여자들을 이용해 당쟁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숙종은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이 왕비가 된다. 하지만 장희빈은 왕비에서 강등되는데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통명전 주위에 꼭두각시 인형과 동물의 사체 등 흉물을 파묻게 된다. 결국 이것이 발각되어 사약을 받아 생을 마감하게 된다.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나오는 장희빈의 비극이 바로 통명전에서 벌어진 것이다.

[Tongmyeongjeon Hall]
Tongmyeongjeon Hall was mainly used as a queen's living space. This place is famous for a bizarre story about Lady Jang (Jang Ok-jeong widely known as Jang Hee-bin). Lady Jang was a royal concubine and later became the queen consort of King Sukjong. In 1694, when her predecessor Queen Inhyeon returned to the palace and Lady Jang was demoted from the queen consort, Lady Jang attempted to curse Queen Inhyeon through making a shamanistic altar and burying hideous things. It is eventually discovered and poisoned to death.
The tragedy of Jang Hee-bin, which often appears as a subject of drama, occurred in Tongmyeongjeon.

대온실

일제에게 주권을 상실한 조선은 많은 능욕을 당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조선 궁궐의 훼손이었다. 일제는 근심이 많은 순종을 위해 그를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창덕궁에 인접한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세우고 유원지로 개조하고 이름을 창경원으로 바꾸었다. 이때 식물원의 대온실로 만든 것이 바로 이 건물이다. 설계는 일본에서 시공은 프랑스에서 진행하였다. 이 대온실은 당시 동양 최대의 규모였으며 열대 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화초를 전시하였다고 한다. 1980년대 창경궁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동물원과 식물원 시설을 없애고 관련 시설을 서울대공원으로 옮기게 된다. 하지만 대온실 건물은 근대 건축이라는 건축문화적 가치를 이유로 보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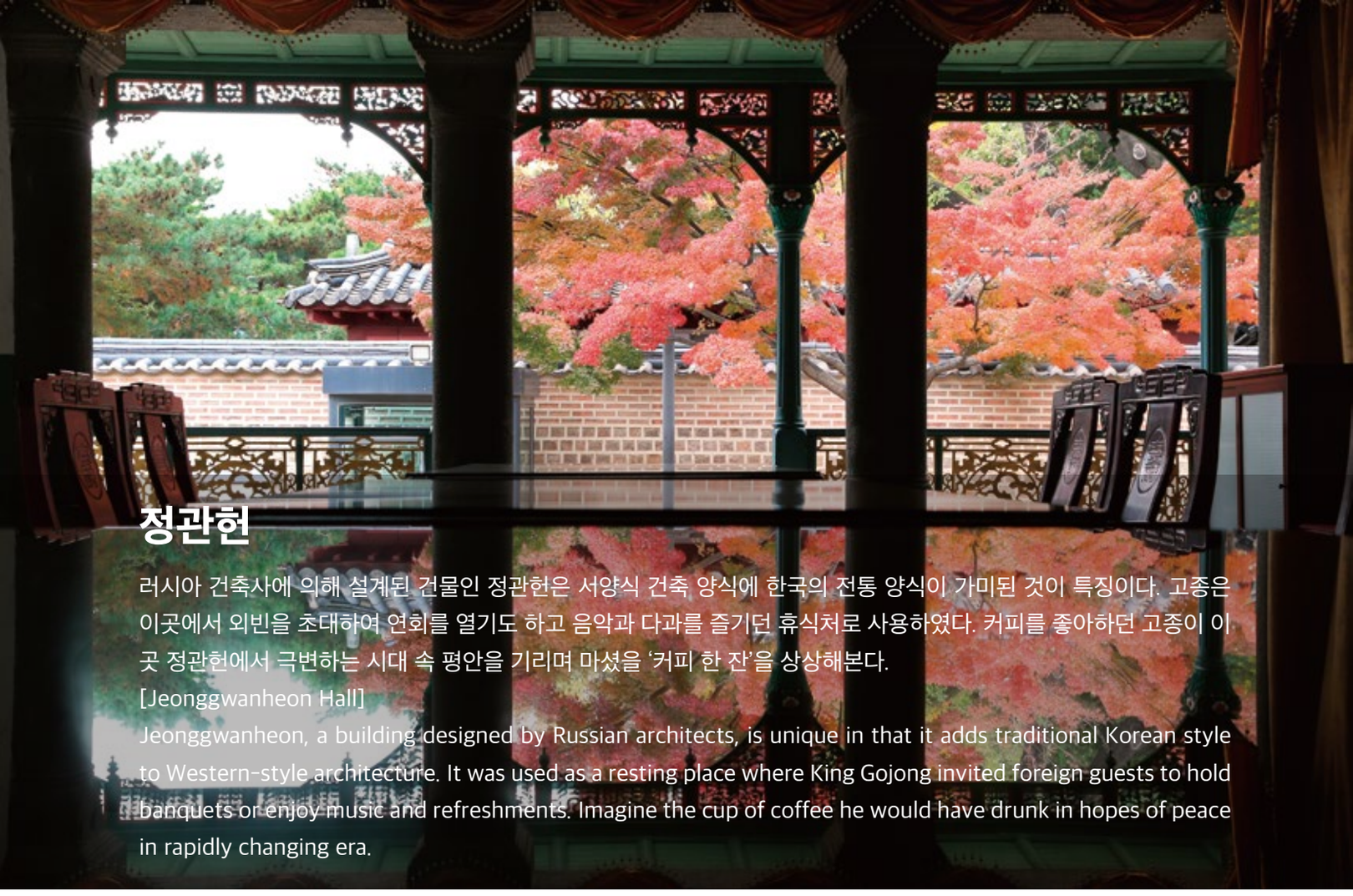
[Grand Greenhouse]
Joseon, which lost its sovereignty to Japan, suffered many humiliations. One of them was the damage of the Joseon palace. This greenhouse was built together with a zoo inside of the Changgyeonggung Palace b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under the pretext of consoling Emperor Sunjong. Designed by a Japanese designer and constructed by a French company, this western style building has mixed structures of steel frame and wood, and its exterior is covered in glass. As the Changgyeonggung Palace restoration project progressed in the 1980s, the zoo and botanical garden facilities were removed and related facilities were moved to Seoul Grand Park. However, the greenhouse building is being preserved for its architectural cultural value of modern architecture.

덕수궁

Deoksugung Palace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추후 덕수궁으로 환궁하게 된다.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을 선포한 후 덕수궁은 황궁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정관헌, 석조전 등 서양식 건물도 여럿 들어서게 된다.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에게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덕수궁에서 진행되는 '왕궁수문장 교대식' 이다.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순찰과 교대의식 등을 바탕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군사들의 위용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eeling threatened by the Eulmi Incident, King Gojong moved to the Russian legation and later returned to Deoksugung Palace. King Gojong declared the Korean Empire and used Deoksugung as the imperial palace. At this time, Western-style buildings such as Seokjojeon and Jeonggwanheon began to be built. Deoksugung Palace is famous not only for its beautiful appearance but also for the 'Royal Palace Guard Changing Ceremony'. You can see the majestic appearance of soldiers of the Joseon Dynasty.



정관헌

러시아 건축사에 의해 설계된 건물인 정관헌은 서양식 건축 양식에 한국의 전통 양식이 가미된 것이 특징이다. 고종은 이곳에서 외빈을 초대하여 연회를 열기도 하고 음악과 다과를 즐기던 휴식처로 사용하였다. 커피를 좋아하던 고종이 이곳 정관헌에서 극변하는 시대 속 평안을 기리며 마셨을 '커피 한 잔'을 상상해본다.

[Jeonggwanheon Hall]

Jeonggwanheon, a building designed by Russian architects, is unique in that it adds traditional Korean style to Western-style architecture. It was used as a resting place where King Gojong invited foreign guests to hold banquets or enjoy music and refreshments. Imagine the cup of coffee he would have drunk in hopes of peace in rapidly changing 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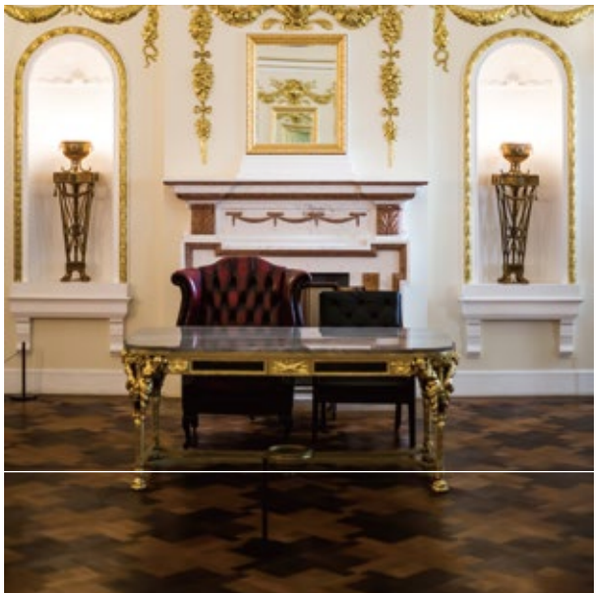
석조전

고종에 의해 황제국이 선포되고 대한제국 황궁의 정전으로 만들어진 석조전은 영국인에 의해 설계되었다. 그리스 로마 건축 양식을 모방한 것으로 엄격한 비례와 좌우대칭이 이 건물의 특징이다. 황실 가족들이 일상 생활을 하며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하던 장소이다.

추후 일제는 덕수궁 일대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석조전을 미술관으로 활용하였으며 광복 이후에는 미소공동위원회 회담, UN 한국임시위원회의 사무실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화재청은 대한제국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기 위해 석조전 복원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금은 당시 자료를 토대로 황궁의 생활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Seokjojeon Hall]

Seokjojeon, which was made as a main hall of the Imperial Palace of the Korean Empire, was designed by the British. Strict proportions and left-right symmetry are characteristic of this building by applying Greek and Roman architectural styles.



경희궁

Gyeonghuigung Palace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왕 그리고 모두가 숭배했을 왕의 기운
경희궁이 들어서기 전 이곳은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의 집이었다. 하지만 왕이 기운이 서려 있다는 이유로 이 장소를 몰수하고 왕궁을 짓게 된다. 하지만 왕이 기운이 흐른다는 경희궁은 지금 가장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경희궁은 100여개의 여러 건물들이 있었으나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경희궁의 건물을 상당수 옮겨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일제는 경희궁 일대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일본인을 위한 경성중학교를 세웠다. 정부는 경희궁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복원작업을 진행해왔지만 궁터에 이미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선 터라 왜소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화려하면서 비극적인 조선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그 어떤 것보다 심대할 것이다.

The king who can have all the power and the king's energy that everyone would worship
Gyeonghuigung Palace was built in a place known to have 'the aura of the king'. However, Gyeonghuigung Palace is currently in the most shabby appearance.
Gyeonghuigung, which was splendid with more than 100 buildings, was damag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government has made great efforts to restore Gyeonghuigung Palace, but many modern buildings have already been built, so reconstruction seems to be limited. Although the current appearance is shabby, the lessons we can learn through the history of Joseon will be greater than anything else.

흥화문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은 원래 구세군 빌딩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일제는 이토 히로부미 추모 사당의 정문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흥화문을 떼어가 버리는 만행을 벌였다. 광복 이후 이토 히로부미의 추모 사당은 영빈관을 거쳐 신라호텔이 들어서게 된다. 1988년 경희궁 복원사업으로 이 흥화문을 원래의 자리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이미 구세군 빌딩이 세워져 있어 현재 위치로 복원되었다.

[Heunghwamun Gate]
Heunghwamun, the main gate of Gyeonghuigung Palace, was originally located on the site of the Salvation Army building.
However, the Japanese Empire moved this Heunghwamun Gate and used it as the main gate to the memorial shrine of Ito Hirobumi. After liberation, the Shilla Hotel was built in the place of Ito Hirobumi's memorial shrine. Heunghwamun was supposed to be relocated to its original location through the Gyeonghuigung Palace Restoration Project, but the Salvation Army building had already been built, so it was restored to its current location.

서암

태령전 뒤에는 기이한 모양의 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는 샘이 있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신기한 바위는 경희궁의 명물로 '왕암'으로 불리었는데 이로부터 왕의 기운이 서려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예상한다. 왕이 기운이 흐르는 이곳에 궁을 짓고 숙종이 직접 '서암 瑞巖 (상서로운 바위) ' 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 두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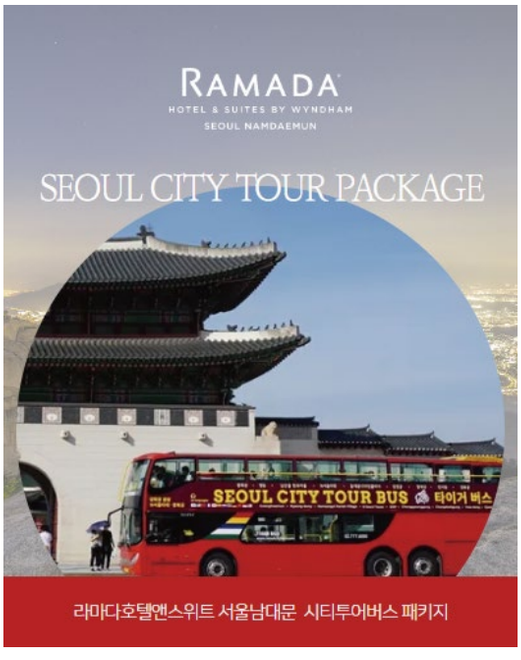
[Seoam]
There is a strangely shaped rock behind Taeryeongjeon. There is a spring on this rock and you can see the water flowing out. This mysterious rock is a specialty of Gyeonghuigung Palace, and it is expected that the story of the king's energy came from it.

Your Next Stop in Korea, SeAn Hotel Group

여행, 일상이 되다

2023년 9월 1일부터 서울 고궁의 야간개장이 시작되며,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는 서울의 100년 후를 그리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개막한다. 즐길 거리 가득한 가을의 서울,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프로모션으로 놀아보자.

Atumn in Seoul is full of fun experiences. Let's enjoy Seoul with various promotions of Ramada Hotel & Suites Seoul Namdaemun.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주소 : 서울 중구 칠패로 27 전화 : 02-775-7177

[한복체험 패키지]
객실과 조식 그리고 한복 대여권이 포함되어 있다. 한복은 경복궁 옆에 있는 참한복에서 대여가능하며 한복 착용시 고궁에 무료 입장할 수 있다.

[서울시티투어버스 패키지]
객실과 조식, 서울시티투어버스 티켓을 제공한다. 2층 버스를 타고 서울시내 주요 궁궐과 남산을 돌아보자.

Ramada Hotel & Suites Seoul Namdaemun

[Hanbok Experience Package]
Room + Breakfast + Hanbok rental tickets
[Seoul City Tour Package]
Room + Breakfast + Seoul city tour bus tickets

세안매거진 독자를 위한 호텔 할인 쿠폰

Season Sale

2023년 12월 31일까지

세안호텔그룹 통합예약사이트 전용

₩10,000

쿠폰번호 320390-48190000

Download

사용처 : 세안호텔그룹 통합예약사이트

사용기간 : ~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호텔
강남아르누보시티호텔,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호텔아트리움종로, 거제리인스테이호텔, 제주센트럴시티호텔, 제주디아일랜드블루호텔, 제주웨스턴그레이스호텔, 제주샹그릴라호텔앤리조트

사용방법
세안호텔그룹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쿠폰을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등록해주세요
www.seanhotelgroup.com 접속 > 회원가입 > 마이호텔 > 나의쿠폰 > 쿠폰등록하기

선착순 100매까지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쿠폰등록시 숫자와 함께 " - " 도 같이 입력해주세요
아이디당 해당 쿠폰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취소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객실금액에서 할인되며, 추가금액 (옵션선택)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안호텔그룹

Exhibition

한국인의 하루, 한국인의 일 년, 한국인의 일생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1전시, 2전시, 3전시)

하루, 일 년, 일생을 기준으로 화려한 그래픽과 실감나는 사운드, 센서를 통한 퍼포먼스 아트를 통해 한국인의 생활을 보여준다. 기존 우리가 경험하던 것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나의 하루는 미래 누군가에게 매우 소중한 문화가 될 것이다.

《한국인의 하루》
조선 후기 이후 한국인의 하루 일상을 보여 준다. 다양한 시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르면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시간은 흘러 시대가 되고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루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한국인의 일 년》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한국인의 생활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에 따라 표현하였다. 지금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설날의 복조리와 설빔, 부채와 모시옷으로 보내는 여름, 풍성한 먹거리로 즐기는 수확의 기쁨,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추위를 견디는 모습은 신기하고 정겹다. 과거 한국인의 생활을 통해 24절기의 중요성과 명절의 의미를 느껴볼 수 있다.

《한국인의 일생》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인의 일생을 볼 수 있다. 출산에서부터 백일 잔치와 돌잔치 그리고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고 죽음에 이른다. 상례를 통해 죽음을 애도하고 제사를 통해 가족의 건강과 화합을 기원한다. 지금과 절차와 양식은 다르지만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형식을 보며 겉모습 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적 의미가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Daily Life of Korean

Location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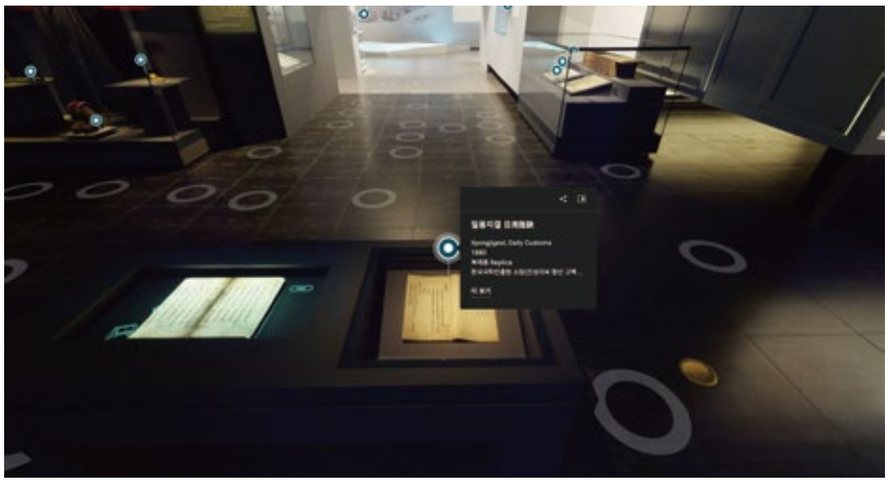
Based on a day, a year, and a lifetime, it shows the life of Koreans through colorful graphics, realistic sound, and performance art through sensors. You can experience a very high level of exhibition. My day today will become a very valuable culture for someone in the future.

온라인 전시 (VR)

https://nfm.go.kr/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온라인 전시 (VR)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홈 > 디지털 박물관에 들어가면, 현재 제공중인 여러가지의 VR전시들을 체험할 수 있다.

A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t offers an online exhibition (VR).
After accessing the homepage
If you enter Home > Digital Museum, you can experience various VR exhibitions currently on offer.



[퀴즈]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알맞은 영어단어를 적어보세요.

How much do you know? Test your English skills!

정답 1. mushrooms 2. onion 3. pumpkin 4. tomatoes 5. eggplant 6. garlic 7. potato 8. pepper 9. carrot 10. corn

발행일
2023 년 9 월 25 일

발행처
주식회사 세안텍스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30 길 13 세안빌딩

문의
02-3413-9331

홈페이지
www.seantecs.co.kr

SeAn Group